

## 『율리시스』 독회: 「이타카」

이 영 심

### <일러두기>

- \* <발제>는 독회진행자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고, <토론 및 의견>은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중 개진한 견해를 독회 후에 정리한 것이다.
-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춘평>으로 분류한다.

## 제 93회 『율리시스』 독회

&lt;모임&gt;

장소: 성균관 대학교 세익스피어홀

일시: 2012. 1. 14.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홍덕선, 이종일, 전은경, 남기현, 윤희환, 김경숙, 김상욱,  
길혜령, 손승희, 이영심, 김은영, 조윤정, 정혜선, 김태은

&lt;발 제: 17장 230행부터 524행까지&gt;

## 1. 1부 주요 내용(230-381)

블룸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다음 싱크대로 되돌아와서 레몬 향이 나는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스티븐은 블룸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물에 손을 씻기를 거절한다. 스티븐이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유는 공수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나 언어의 유동성’에 대한 그의 불신과도 연관이 있다. 그는 세례(baptism)를 내면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블룸은 스티븐의 비위생적 습성을 “천재의 기형적 독창성”으로 받아들이며, 스티븐이 지닌 “자기 포기과 자기 회복의 대등하면서 상반된 힘”에 놀란다. 이어 냄비의 가열과 불의 비등(ebullition)이 과학적으로 서술된다. 블룸은 실질적인 인간, 과학인으로서 비등 현상을 직접 관리한다. [스티븐은 시간과 공간의 특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명상하는 데 반해, 블룸은 이들을 정복하려 한다.] 블룸은 끓인 물을 자신의 면도를 위해 이용해야 한다. 텍스트에는 야간의 면도가 아침에 하는 면도보다 좋은 이점이 나열된다.

이어 블룸은 부엌의 조리대 하단, 중단 및 상단의 서랍을 차례로 연다. 이 때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의 목록이 사실적으로 자세히 묘사된다. 한편, 찬장의 식기 조리대 위에 번화가 찍힌 두 장의 찢어진 경마권 4개의 조각들이 블룸의 시선을 끈다. 보일런의 짓이다. 잠시 블룸은 애스콧 경마에서 Throwaway호의 승리에 관한 우연의 일치를 회상한다. 그는 바니 키어년 주점에서 레너한으로부터 경기의

뉴스를 들은 것을, 그리고 폴린으로부터 경마 승패의 결과에 관한 질문을 회상한다. 블룸은 젊은 YMCA 청년이 엘리야의 도래를 알리는 뼈라(throwaway)를 오코넬 다리 위에서 왜 자신에게 주었는지, 또한 왜 밴텀 라이온스가 경마의 말을 체크하기 위해 자신에게 링컨가(street)에서 신문을 빌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가 ‘버리려고(throwaway)’라는 말을 오인하여 경마 Throwaway호의 팀으로 간주했는가를 기억한다. **[여기 다크 호스요, 아웃사이드였던 Throwaway호는 블룸과, 도래할 엘리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응된다.]**

블룸은 앞서 Lotus-eater 장에서 경마의 승패 결과에 대한 예고를 받은 다음 “그가 자신의 얼굴에 영감의 빛을 띠며, 예언의 언어로 새겨진 승마 경기의 비결을 그의 팔에 안은 채” 목욕탕으로 향하던 일을 회상한다. **[수태고지(Annuciation), 경마의 팀(‘다가오도다.’), ‘하늘의 날씨(heavenly weather)’, Incarnation과 목욕]** 블룸은 밴텀 라이온스에게 잘못 준 경마의 팀에 대해 다시 우려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적 팀을 잘못 해석할 경우의 위험을 숙고하지만 돌이켜보면 자신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자축한다.

블룸은 코코아 두 잔을 만들어, 딸이 준 머스태쉬컵 대신 손님의 것과 꼭 같은 컵을 선택하고 몰리의 아침 식사 크림의 대부분을 손님에게 대접한다. **[주인(host), 대량 생산(mass product), 위스키 코코아(creature cocoa): 영성체(communion)에 대한 희화화]** 스티븐과 블룸은 이러한 성찬의 영교 속에 순간적인 밤의 향연을 즐긴다.

## 2. 2부 주요 내용(383-524)

서로 코코아를 마실 때 블룸은 스티븐의 침묵이 그가 마음으로 시를 창작하고 있는 증후로 간주한다. 그러한 생각은 블룸을 문학적 틀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리하여 자신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가 어떻게 하여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참고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했던가를 회상한다. 그런 다음 블룸은 자신의 창작적 노력의 예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에서 ‘잠재적’(potential), ‘동적’(kinetic)이란 과학적 두 단어의 결합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스티븐이 초기 장에서 드러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어휘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즉, 잠재적 에너지를 지닌 자아는 성숙의 과정에서 동적 실현화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블룸의 시, 수수께끼 및 이합체시는 모두 그 자신에 관한 언급이다. 그러나 그 묘사 방법은 각각 다르다. [첫째, 둘째 시는 폐쇄적이지만 이합체시는 시인의 개성이 잘 녹아있다. 이렇듯 세 개의 시의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잠재적 시인에서 동적 시인애로의 예술적 진전 과정은 바로 자기 폐쇄에서 사랑 및 개방으로 나아가는 인간 행로를 의미한다. 특히 중간의 수수께끼는 얼핏 보아 부적합한 듯하지만, 스티븐의 잠재력과 블룸의 실재성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블룸의 문학적 야망은 1893년 게이어티 극장에서 크리스마스 대축제의 팬터마임 <수부, 신바드>에서 노래로 요구되는 시를 쓰려고 생각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블룸은 정치적, 상거래의, 기술적 및 심지어는 에로틱한 종류의 다양한 복잡성 때문에 이와 같은 야망을 성취할 수 없었음을 회상한다.

이어 스티븐과 블룸 간의 나이의 상관관계가 서술되며 수학적으로 기술된다. 더불어 두 사람 사이의 이전 만남들이 기록된다. 블룸과 스티븐은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제 3의 과거의 연쇄를 발견한다. [리오던 부인, 시티 압즈 호텔 등] 블룸의 리오던 부인에 대한 현재의 기억들은 그녀의 노쇠함과 기행에 대한 것이었다. 스티븐의 그녀에 대한 주된 기억들은 그의 유년시절의 것으로 남아 있으며, “두 개의 옷술, 즉 등에 적갈색 벨벳을 댄 옷술과 등에 녹색 벨벳을 댄 옷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조적 기억 속에서 쟁점을 이루는 것 스티븐과 블룸의 나이차로서 블룸은 이를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용감성 및 젊음의 기운을 중년에까지 연장하려 하다 포기한 시도를 되새긴다.

### <Discussion topics>

1. 스티븐의 철학적 사변과 비교되는 블룸의 실질적 사고와 행동의 대조
2. 블룸과 스티븐의 “순간적” 성찬의 영교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3. 블룸과 스티븐의 나이와 관련된 서술이 의미하는 것은?
4. 두 사람이 스쳐가듯 공유했던 시간과 공간, 그와 관련된 기독교 영성체와의 상관관계?
5. 문학과 블룸, 스티븐의 관계는?

## 제 94회 『율리시스』 독회

## &lt;모임&gt;

장소: 성균관 대학교 셰익스피어홀

일시: 2012. 2. 17.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홍덕선, 이종일, 전은경, 남기현, 김경숙, 손승희, 이영심,  
황성희, 김은향, 이희수, 조윤정, 김은혜, 아만다, 저스틴

## &lt;발 제: 17장 497행부터 702행까지&gt;

## 1. 1부 주요 내용(497-620)

블룸의 리오던 부인에 대한 기억은 대개 그녀의 노쇠로 인한 쇠약과 기행에 관한 것이다. 스티븐의 그녀에 대한 주된 기억은 ‘두 개의 옷술, 즉 등에 적갈색 벨벳을 댄 옷술과 등에 녹색 벨벳을 댄 옷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억 속에 쟁점을 이루는 것은 스티븐과 블룸의 나이차로서 블룸은 이를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신체 운동으로 젊은이의 기운을 중년에까지 연장하려 한 시도를 되새긴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의 인종적 차이는 공공연히 언급되지 않는다.

이후 그들 상호의 조상에 대한 계보와 세례에 대한 기억이 기록된다. 스티븐은 세례를 한 번 받았지만 블룸은 세 번의 세례를 받았다. 첫 번째는 길머 신부에 의해 아일랜드 신교도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스위즈 마을의 어느 물 펌프 아래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마지막 세례는 1888년 찰스 신부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졌다. 당시 블룸은 몰리와 결혼하기 위해 신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학력이 비교되는데, 그들은 학력에서 뿐 아니라 천성 또한 다르다. 만일 스티븐이 블룸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는 블룸이 아니라 Stoom이 되었을 것이요, 반면 블룸이 스티븐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Blephen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름의 교합은 두 천성의 결합을 암시하며 신학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양극은 서로 만나게 마련이다.’ 스티븐과 블룸은 서로 다른 상반된 기질을 가진다. 블룸은 과학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나 스티븐은 예술적인 기질을 지닌다.

더불어 블룸의 재능은 순수과학 보다는 응용적이며 실질적인 것이다. 블룸은 그가 평소 만들려 꿈꾸어 온 발명품들, 이를테면 ‘항공 낙하산, 반사 망원경, 나선형 코르크 마개뽑이’ 등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과학적 흥미의 실질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그들을 위한 과학교육용이나 놀이 기구의 대용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대 광고의 거대한 가능성들에 대해 명상한다. 좋은 광고는 명확성과 단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불량한 광고는 막연함 혹은 지나친 복잡성을 띠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의 가장 두드러진 예로 블룸은 “Plumtree’s Potted Meat”를 들고 있다. 블룸이 창안한 것 중 가장 뛰어난 광고의 예는 화려하게 장식된 광고 마차에 두 아름다운 아가씨를 태워 그들에게 뭔가를 쓰게 하는 것으로, 블룸이 한 때 헬리 문방구에 추천했으나 거절당했던 아이디어이다. 블룸의 이러한 생각에 스티븐은 말이 없는, 감상에 젖은 한 젊은 여인이 호텔의 메모지 위에 그녀의 주소를 쓰는 신비스럽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떠올린다.

## 2. 2부 주요 내용(497-620)

블룸은 스티븐의 퀸즈 호텔 관련 생각에 의해 1886년 6월 27일 실제 퀸즈 호텔에서 약물 과용으로 자살한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블룸과 스티븐 두 사람이 품은 마음의 일치는 퀸즈 호텔을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우연의 결과이다. 호텔 장면의 서술에 잇따라 스티븐은 그가 신문사 장면 말미에서 명상했던 ‘자두의 우화’(Parable of the Plum) 또는 ‘A Pisgah Sight of Palestine’에 대해 다시 서술한다. 이 서술은 앞서 퀸즈 호텔에 이어 블룸의 ‘Plumtree’s Potted Meat’과 두 번째 우연의 일치를 가져온다. 자두나무는 남성의 음경을 상징하는 고기를, 단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퀸즈 호텔이 몰리의 집이라면 젊은 여인은 몰리, 젊은 사나이는 스티븐 자신이 될 수 있다. 몰리는 자신의 침실에서 빵을 먹는 여왕과 관련되는데 ‘자두 우화’의 두

Vesta 여신의 순결한 처녀가 몰리를 형상화한다면 그들이 소모하는 고기는 아마도 보일런이 될 것이며, 빵은 블룸인 셈이다. 블룸은 몰리의 빵 벌이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스티븐이 서술한 ‘자두의 우화’에 대해 스티븐의 문학적 천부의 재능을 ‘재정적, 사회적, 개인적 및 성적 성공’의 어떤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고한다. 블룸은 <내가 좋아하는 영웅> 혹은 <지연은 시간의 도둑> 등, 자신의 창작물을 제시한다. 블룸은 몰리와의 관계, 특히 ‘아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및 해결책을 고안한다. 그는 ‘실내 유희, 수놓기, 봉투 쓰기’ 등과 같은 오락의 장점을 자주 생각해 왔었다. 블룸은 아내의 지적 빈곤을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 계산, 특히 교양 강좌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인다. 아내의 교육을 증진시키는 방안 가운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특정한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두거나, 면전에서 현장에 없는 다른 사람의 무식한 실수를 공공연히 조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 <토론 내용>

김길중: 올리시스가 집필될 당시의 더블린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나요?

홍덕선: 더블린의 인구는 1901년에 약 29만 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은경: 블룸과 스티븐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길중: “round”라는 구절에는 지리적인 이미저리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roundness”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포용력이 넓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승희: “linar”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경: 어떤 의미에서는 “No Beginning” 그리고 “No Ending” 이 양자의 의미를 모두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심: 그렇다면 “roundness”는 Bloom에게 속한 것이고, “sharpness”는 Stephen에게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경: “the University of Life”는 무엇인가요?

저스틴: I think it means life itself, and a real life.

김길중: 불륨은 과학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스티븐은 예술적 측면을 드러내는데, 특히 이장은 현대 과학의 이미지가 많으며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기현: Lyotard의 서사 이론에 따르면, 과학적 담론과 서사적 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중: “artistic” 이나 “art”는 모두 원래는 “craftmanship”에서 온 것입니다. 결국 어원적으로는 “scientific”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 빅토리아 시대에는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낙관주의적 전망이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이스의 과학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건: 이 장에서는 운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의 대조가 드러나고, 또한 희랍적인 측면과 유대인의 과학적 측면이 대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기질이 서로 합쳐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를 테면, Jew-Greek 이나 Greek- Jew와 같은 표현에서 이런 측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국이 서로 만난다는 주제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측면에서는 “compromise”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이질적 단어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전은경: 각기 다른 성질들의 조화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이 그 독자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길중: “인생이라는 대학”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일랜드 대학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건: 두 개의 이질적인 기질의 결합은 물론 중요한 측면입니다.

남기현: 삼위 일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건: “성변화”와 “삼위 일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길중: 스티븐과 불륨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은경: 불륨이 물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모습은 마치 조이스와 노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심: “유식”과 “무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이스는 이 양자에 대한 고정시각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식한 물리가 세상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



입니다.

남기현: 몰리가 가장 실제 생활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만다: 몰리는 블룸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무식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티도 블룸이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함으로써 블룸을 즐겁게 만들고 있거든요.

전은경: 블룸과 스티븐의 호텔 장면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것은 두 사람의 기질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영심: 스티븐의 장면은 미래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고, 블룸의 장면은 과거의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건: adduce, induce, deduce, produce, conduce 등의 말장난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김길중: 언어의 비이성성을 드러내는 것과 아울러 순수한 말장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건: 스티븐의 “낭만주의+비극적 드라마”, 특히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결합은 Hauptman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een’s Hotel’에서 블룸의 아버지가 자살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호텔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홍덕선: 주석에는 이 호텔이 블룸의 아버지의 소유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제 9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성균관 대학교 셰익스피어홀

일시: 2012. 3. 17.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

참석자: 김종건, 민태운, 홍덕선, 남기현, 김경숙, 김상욱, 손승희, 이영심, 박진훈,

최석무, 아만다, 저스틴, 김은향, 이희수, 조윤정

<발 제: 17장 703행부터 919행까지>

1. 1부 주요 내용(703-800)

스티븐의 이야기는 위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 <모레 네부킴>을 쓴 12세기 철학자 Moses Maimonides, 독일 철학자로서 8세기 유대인 해방의 최고 선각자라 불리우는 Moses Mendelson이다. 그 밖에 유대계 법률의 선각자들, 저명한 인사들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스티븐과 블룸은 고대 헤브라이어와 고대 아일랜드어를 비교한다. 유대인과 아일랜드인 두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관련하여 서로 고통을 받았다. 한편 시온 산의 다윗 왕국의 부흥 및 아일랜드의 정치적 자치, 주권상의 가능성도 함께 서술된다. 이어 블룸은 성가(이스라엘 국가)를 부르다 중단한다. 블룸이 부르는 시온주의의 찬가는 시온이 다비드왕의 복위 및 아일랜드의 정치적 자율과 헌신의 가능성을 예언하는 찬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블룸이 유대인의 찬가 구절을 노래할 때 스티븐은 “의미심장한 고대의 남성다운 낯선 선율 속에 과거의 누적”을 듣는다. 블룸과 스티븐은 두 종족의 동질성을 서로 나누며 블룸은 스티븐에게 헤브라이 및 켈트의 역사를 접촉하게 한다. 또한 블룸은 스티븐의 “빠르고 싱싱한 남성다운 눈에 익은 자태 속에서 미래의 운명을 본다.” 이 부분은 스티븐과 블룸이 서로를 인식하는 기묘한 순간이다. 566페이지에서 스티븐은 블룸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본다. 이로써 중요한 에피파니의 순간이 그려진다. 블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교회에서, 법정에서 또는 연예계에서 그가 실현하지 못한 꿈들을 회상한다.

<Discussion Topics>

1. 아일랜드인과 유대인 사이의 공통점, 역사적 부침, 서로에 대한 관점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2. 그리스도로서의 블룸, 스티븐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짧은 에피파니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 2. 2부 주요 내용(801-919)

블룸은 유태인과 아일랜드 사이를 유주하며 스티븐에게 가요를 부르도록 권장한다. 이 가요는 초서의 「수도원 부원장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링컨 성 휴의 오래된 전설에 기초한다. “그녀는 몸을 온통 푸른 옷으로 감싸고 있었지요”의 구절에서 ‘푸른 옷의 그녀’는 밤의 환각 장면의 밀리 모습으로 떠오르고 블룸은 딸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상기한다. 스티븐이 부르는 이 가요는 기독교 소년, 해리 휴즈가 유태인 딸에 의해 집안으로 유인되어 살해당하는 이야기로서 두 종족의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스티븐의 주석은 매우 난해한데, 스티븐 자신이 어떤 비밀의 이단자의 방으로 인도되어 그 곳에서 파괴되는 숙명적 희생자가 됨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다양한 비평이 있는데 그 중에는 블룸이 이 주석의 주인공임을 설명하는 것도 있다. 스티븐의 가요에 대해 블룸은 살해의 생각으로부터 살해를 야기하는 마음의 비정상적 상태에 대한 생각으로, 과학상 알 수 없는 최면술, 몽유병 등을 떠올린다. 블룸은 스티븐의 가요가 예술가의 운명에 대해 어떤 상징이 될 것인가 보다 그 속에 예시된 역사의 누적에 관심을 가지며, 유태인을 수세기 동안 희생자로 만든 미신, 공포, 보복, 광신 등을 상기한다. 이처럼 블룸의 최면술적, 몽유병적 생각은 유년 시절의 딸 밀리 생각으로 나아가고, 그녀의 유년 시절 기억들이 소개된다. 블룸은 딸 밀리와 고양이의 유사성을 생각한다. 밀리가 머리를 받쳐들고 아빠가 리본을 달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고양이가 아취형으로 몸을 구부리고 목을 쓰다듬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유사하다. 블룸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과학적 일들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아빠의 생일 선물로 마시타쉬웁을 선물로 사서 보답하는 일을 꿈꿈이 생각한다. 또한 그녀가 사계 지불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에게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당장 이득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의 과학에 관한 지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일 등을 회상한다.

### <Discussion Topics>

1. 가요의 은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 가요가 전달하는 갈등과 달리 밀리에 대한 기억, 사랑을 떠올리는 아이러니
3. 가요에 나타나는 유태인과 아일랜드인 사이의 갈등

## &lt;토론 내용&gt;

- 최석무: 아일랜드의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Church of Ireland는 성공회(영국교회)라고 부르고, 가톨릭은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 김종건: 774행의 의미는 블룸이 스티븐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 로마자와 아일랜드어 두 가지로 썼습니다.
- 김경숙: 이 장에서는 쌍으로 이루어진 대립하는 것들이 결국은 만나게 되는 지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 남기현: 아일랜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 민태운: 이 장에서는 또한 숨겨진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남기현: 시각적으로는 스티븐의 모습이 예수에 해당하고, 청각적으로는 블룸이 예수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양가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건: 호머의 『오디세이』와 유사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장의 내용을 오디세우스가 겪는 재난의 측면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남기현: “accent of the ecstasy of catastrophe”는 목시룩에 대한 연구 부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 김종건: Homer 작품의 제 5장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 제 96회 『율리시스』 독회

## &lt;모임&gt;

장소: 성균관 대학교 세익스피어홀

일시: 2012. 4. 21.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

참석자: 김종건, 홍덕선, 전은경, 남기현, 김경숙, 김상욱, 최석무, 이영심, 김은향, 조운정, 황성희, 김태은, 허선경

## &lt;발 제: 17장 850행부터 1069행까지&gt;

## 1. 1부 주요 내용(850-955)

블룸의 생각은 밀리의 몽유병으로 옮겨가고 그녀의 유년 시절 기억들이 기술된다. 블룸은 딸의 머리 색깔이 오스트리아 조상과 닮았음을 생각하며 몰리의 어린 시절 연인인 멀비 중위와의 사건을 회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년기, 사춘기의 밀리에 대한 기억들이 블룸의 의식에 떠오른다. 블룸은 밀리와 고양이와 유사성 및 비유사성을 떠올리는데 밀리나 고양이 모두 집을 나간 상태이다. 밀리는 머리를 받쳐 들고 아빠가 리본을 달아주기를 바라기 일쑤였고 이는 고양이가 아취형으로 몸을 구부리고 목을 쓰다듬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유사하다. 밀리는 고양이와 쥐를 노려보듯 호수의 물고기를 노려보곤 한다. 그녀는 고양이가 귀를 씻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훑어 내린다. 그녀는 백일몽을 꾸기도 한다. 블룸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과학적인 일들에 호기심을 갖게 했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아빠의 생일 선물로 마시타쉬컴을 선물로 사서 그에 보답하는 일을 떠올린다. 블룸은 딸이 사계지불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에게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당장 이득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의 과학에 관한 지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 일 등을 회상한다.

블룸은 스티븐에게 하룻밤 머물 것을 권유하는데 그것은 스티븐이 여러모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블룸은 스티븐에게 일 년 전에 자살한 시니코 부인을 아는지 묻는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시니코는 더피 청년이 그의 딸에게 마음이 있다는 망상 아래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다. 그 때 더피씨는 시니코의 아내와 깊은 애정 관계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다. 시니코 부인과 더피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지만 그 결과 시니코 부인은 자살을 감행한다. 이 부분은 스티븐을 집에 묵게 하는 블룸의 상황과 교묘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나 스티븐은 집에 하룻밤 머물 것을 거절한다.

## &lt;Discussion Topic&gt;

1. 『더블린 사람들』에서 시니코와 블룸 간의 상황적 유사성
2. 블룸은 스티븐이 자신의 아내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내와

관련하여 스티븐을 가까이 두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 2. 2부 주요 내용(956-1069)

블룸은 앞서 사창가에서 보관했던 1파운드 7실링의 돈을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이어 앞으로 가능한 친교의 방법들이 논의된다. 스티븐이 그의 집에서 아내에게 이태리어를 교습하고 그 대가로 그의 아내가 스티븐에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블룸 자신은 스티븐과 함께 지적인 토론을 위해 어디선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블룸은 자식을 발견한다거나 귀환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이다. 부성이란 것이 법률상의 가공이라는 생각 아래 블룸은 언젠가 한 어릿광대가 군중 속에서 자신을 그의 부친이라 선언했던 일을 떠올린다. 광대는 환상에 따라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적 인물이다. [이는 멀리건 및 오스카 와일드와 연관된다.] 또한 블룸은 눈금을 새긴 동전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았음을 회상한다. 광대는 블룸의 자식이 아니었고, 블룸의 화폐는 돌아오지 않았다. 블룸은 인간 생활의 포괄적인 범람이 인간 존재의 완전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인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무한한 욕망을 드러낸다. 블룸은 인간의 행복과 번영의 과정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들, 고통, 질병, 죽음, 광기 등의 생각으로 낙담한다. 블룸의 동정심은 자유를 제한하는 시간, 공간의 조건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나온다. 개인은 탄생하고 살다가 고독 속에 죽고, 이러한 과정을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이 제공하는 불가피한 조건들, 살육의 필요성, 생사의 고뇌, 여인의 일률적인 월경 활동, 불가피한 출산, 선천적 범죄성, 집단 몰살적 전염병, 대격변적 홍수, 지진의 발생 등 때문에 인간 생활은 완벽해질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을 제거하고 그 대신 만족스런 다른 현상으로 대치한다는 것이 탁월한 지식인이 해야 할 과업이다.” 스티븐은 관찰된 현상에서 추상적 진리의 명상에 이르는 반면, 블룸은 추상의 세계에서 구체의 세계로 나아간다. 블룸은 인류에 대한 동정을 야기하는 긍정적인 조망 안에서 인간의 탄생, 사랑, 죽음을 명상한다. 그리고 그의 과학적 명상은 그로 하여금 동료들을 위한 동정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제 스티븐과 블룸은 구속의 집을 나와 영광스러운 탈출을 감행한다. 블룸이 든 양초는 이방인을 비추는 불빛이며, 그의 명상은 우주적 조망으로 움직인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둘러싸인 채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별

들처럼 천체의 방랑자가 된다.

### <Discussion Topic>

1. 포용성과 동정심 있는 인물로서 현재의 불륜을 있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2. 신학과 과학의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3. 어릿광대의 에피소드는 부자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가?

### <토론 내용>

최석무: 이 대목에서 Mrs. Sinico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스티븐을 유혹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내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민태운: 시니코 부인과 그 딸 그리고 몰리와 밀리의 유사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심: 모티브의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륜이 스티븐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기현: 940행의 School fellow는 스티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942행의 school fellow와 jew's daughter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석무: 하나로 고정하지 말고 스티븐과 베논, 그리고 밀리와 몰리라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욱: School fellow는 기프트에 의하면 베논, Bloom's Day의 책자에 의하면 스티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은경: 한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조이스의 의도적인 전략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의 양가성, 혹은 이중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덕선: 몰리와 스티븐의 결합이 갖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남기현: 시니코 부인과 메리 디덜라스의 공통점은 없을까요?

이영심: 미혼 남성과 유부녀의 관계가 시니코 부인과 더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은경: 스티븐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

다.

강서정: 스티븐은 여성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추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현: 스티븐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두 가지 잡지 가운데 하나는 속옷에 관한 것입니다.

전은경: 스티븐의 모습에서 상당히 금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민태운: 머리가 검은 두 사람에서 금발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륜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남기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관계,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강간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경: 정치적인 함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태운: 17장은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언어(과학적 언어)의 예를 보여줍니다.

김경숙: “Oxymoron(모순어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태운: 부성찾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석무: 부성은 하나의 “fiction”에 불과합니다.

남기현: 동성애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와 같은 것이 이 텍스트에도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Bi-Sexual이 정상적인 것일까요?”라는 불륜의 질문은 그의 동성애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김경숙: “부성애”를 회화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기현: 스티븐과 몰리 사이의 대화의 다양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서정: “이탈리아” 자체가 Sexual한 connotation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은혜: 불륜의 소망은 결국은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정: 아들과 아버지는 한 여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태운: 잃어버린 아들인 Rudy를 찾는다는 것과 스티븐과 몰리를 연관시키는 것은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 시니코 부인과 더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몰리와 스티븐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현: 15장의 상황과 17장의 상황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모든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15장이고 17장은 현실사회의 측면이 더욱 더 강



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태운: 죽은 Rudy의 자리를 스티븐이 대신하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덕선: 자기 부인과 다른 남성과의 간음관계가 *Exile*의 중심 모티브중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면 이것이 자신의 불모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남기현: 불륨은 모든 변태적인 측면을 다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건: 불륨의 관음증은 *Ulysses*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Finnegan's Wake*의 “Sexual s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기현: 기사와 왕비, 삼촌의 아내를 사랑한 조카의 이야기 등이 “adultery”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민태운: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의 방식으로 성적인 방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남기현: “Sexuality”와 “Creativity”가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제 9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성균관 대학교 셰익스피어홀

일시: 2012. 6. 16.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강서정

범위: *Ulysses*, Chapter 17 “Ithaca”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민태운, 홍덕선, 이종일, 남기현, 윤희환, 김경숙, 길혜령, 손승희, 이영심, 박진훈, 김은혜, 주재하, 문영희, 이효인, 이정아, 조윤정

<발 제: 17장 1029행부터 1145행까지>

불륨과 스티븐은 집을 나와 정원으로 빠져나온다. 이 모습은 스티븐은 집사로,

블룸은 복사로 함께 영광의 탈출을 감행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를 축하하는 시편을 읊으면서 이들은 하늘을 본다. 하늘에는 “습기 찬 푸른 밤의 과실들로 매달린 별들의 천국 나무”가 있다. 이렇듯 하늘의 별을 보는 블룸의 명상은 우주적 조망으로 옮겨간다. 인간의 짧은 70년 수와 우주의 광활함이 비교되는데, 작가는 “수학적, 추상적 조망을 통하여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공명을 발산하는 밤의 사건들을 여과한다.” 블룸은 지질학상 역사의 시대 및 만사의 복잡성에 대해 명상한다. 그는 우주에 대해 명상하면서 가시적 세계의 현상만을 살피는데, 그의 의식은 “거대한 상상적 도약과 범속한 현실의 세목 사이를” 오간다. 블룸은 다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 및 천문학적 발견, 천체가 지상의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한다. 그는 유사 인류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지상의 인류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변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이 허공에, 공허 속의 허공에, 그리고 허공인 모든 것에 집착해 있음”을 명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은 속죄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유성이나 위성 등에 인간의 존재는 가능하나, 만일 그들이 존재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며 속죄 없는 공허일 뿐 이러한 공허의 지배 하에서는 속죄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블룸은 셰익스피어, 자신, 스티븐의 탄생 즈음하여 그들이 상징하는 별들의 출현을 읽는다. 이런 명상에서 그는 인간 생활을 구성하는 “무한소의 단시간 동안의 막간”을 시인한다. 그러나 별들은 냉담하다. ‘하늘 나무’는 불가지론의 유토피아일 뿐이며 “거기에는 기지의 것에서 미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알려진 길이 없다.”

### <Discussion Topic>

1. “범속한 현실의 세목과 거대한 상상적 도약”을 오가는 블룸의 의식, “난쟁이와 키다리의 시선”, “개구리와 매의 시선”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p574에서 대전제(the major)와 소전제(the minor)는 각각 무엇인가?
3. 신학적, 예술적 감각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블룸의 화법은 작품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 &lt;토론 내용&gt;

김종건: 이 대목에서 고양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일까요?

김경숙: 밀리를 언급할 때도 고양이가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일: 블룸과 스티븐은 정원으로 나가고, 고양이는 반대로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고양이의 시선 속에 블룸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상대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건: 신학적 상징성이 이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스티븐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과 많은 유사성을 지닙니다. 또한 이 장에는 클라이막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모세의 출애굽기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승천과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이 이곳에서는 블룸을 선도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키르케」 장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상징주의와 천문학의 모티브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서는 신학과 천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노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종일: “찬송가를 영창하면서 왔는가?”라는 질문과 관련지어 본다면, 블룸이 노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길중: 라틴어를 읊조리는 것으로 본다면 스티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홍덕선: 선창을 하면 복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노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길중: “secreto”는 “따로따로”라는 뜻과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현: 즉, 청중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티븐은 라틴어로 시편 114. 1절을 노래했습니다.

홍덕선: 스티븐이 이런 노래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웃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남기현: 스티븐이 출애굽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를 읊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태운: 블룸은 햇빛을 들고 복사역을 하고 있고, 스티븐은 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영심: “집사”라는 발제문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혜령: “부제” 혹은 “부사제”라는 단어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 고양이 가 드나드는 뒷문으로 남자들이 나오는 초라한 모습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김길중: 집의 뒷문으로 나온다는 측면에서 “rere”의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건: 3장에서 끝 부분에서도 “re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김길중: 단테와의 유사성이 보입니다. 단테도 성서(종교)와 단절하고 베아뜨리체가 나타나 승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종일: 과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evolution”과 “involution”에 대한 생각도 재미있습니다. 나노공학적인 시간 개념을 도입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심: 1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합니다.

홍덕선: 빛보다 빨리 간다면 미래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종일: UFO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남기현: 천문학에 관한 내용은 브리태니커 사전(1922년도 판)을 참고했습니다.

윤희환: 900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언급은 그 나이를 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박진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성경에는 유독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40일동안 금식을 했고, 사순절이 있고, 40이라는 나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길혜령: 40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건: 숫자학도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곡』은 10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40 30 30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밍웨이의 텍스트에도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